

일본관광의 사회조직: 단체여행의 역사와 문화

문목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인들의 관광행위의 독특한 유형으로 드러나는 단체여행, 집단여행의 역사 및 사회조직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 문화의 일면을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최근들어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이나 지식층에서는 가능한 한 지양(止揚)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도 발견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에서나 가족이나 친지단위를 넘어 여행사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관광이나 패키지 투어가 가장 보편적 여행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일본인들의 단체여행, 집단여행의 관행은 일찍이 중세때부터 발달한 순례여행에서부터 유래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순례여행을 가능하게 하였던 오시(御師)와 센타츠(先達)의 역할을 살펴 보았다. 신도신앙과 관련된 종교적 司祭의 일종이었던 이들은 지방을 돌며, 유명 신사나 사찰의 참배객들을 모집하여 목적지까지 안내하고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 여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제도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순례 여행이 등장하기 시작한 해이안 시대 말기부터 명치초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제도였다는 점과 또한 주로 이들의 영향으로 각 지역에 조직되었던 종교적 결사체의 일종인 코(講)조직은 특히 토쿠가와시대에 들어 이세신궁을 포함한 유명 신사나 사찰에의 참배여행을 일반민들에게까지 대중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중세이후 사사참예(寺社參詣)를 위한 여행에서 발전되어 나온 단체여행의 전통이 현대사회와 수학여행, 사원여행, 농협이나 부인회 등 농촌지역사회와의 여러 단체들의 여행,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패키지 투어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피고, 나아가 현대적 단체여행을 조직하고 일선하는 여행업 역시 중세이래 순례여행을 안내하는 체계로 발전되었던 오시·센타츠 제도로부터의 연속성 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에 있어 여행은 개인의 행위라기보다는 소속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행위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화적 관행으로 「카도지메(門注連)」, 「카게진(陰膳)」, 「사카무카에(坂迎)」 및 「센베츠(餞別)」와 「오미야케(土産, 선물)」의 풍습을 제시하였다. 여행과 관련된 이러한 문화적 관행들은 일본사회에서 집단에의 소속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그것은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의 일시적 이탈을 의미하는 여행에 대하여 출발할 때와 여행에서 돌아와 집단으로 다시 통합되는 단계를 의식을 통하여 극화하고, 또한 여행 중에도 떠난 사람의 편에서나 남아있는 편에서나 끊임없이 집단과의 관계성을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단에의 소속을 재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I. 서 론

일본인들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민족의 하나일 것이다.¹⁾ 뿐만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아니라 일본인들의 관광행위는 비교문화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어디든지 여행을 다녀와서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 선물을 돌린다던가, 혹은 그들은 대부분의 여행을 개인이 아니라 그룹으로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관광관련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여행은 해외여행의 경우 패키지 투어를 포함하여 단체여행이 전체의 8할정도를 차지하며, 국내여행의 경우는 6할 정도가 단체 또는 그룹으로 하는 여행이다 (白幡 1996: 209). 일본인들의 여행행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행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으로 한 여행사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평균 4,000개 이상의 해외 패키지투어가 조직되며, 3만개 이상의 국내 단체여행이 주선된다고 한다 (神崎 1991: 7).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그룹으로 여행할 당시 매우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까닭에 특히 유럽지역 등에서는 관광가이드의 깃발아래 말잘 들는 초등학교 학생들같이 질서있게 따라 다니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간혹 빙정거리는 언론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안에서도 평론가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인들의 집단여행의 관습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며 공동으로 행동해야 하는 단체 여행, 집단여행에서는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없으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과거에 일본인들의 여행행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어 왔던 그룹투어나 패키지투어가 아닌 일인여행 (一人旅 즉 '히토리 타비')이나, 그룹이라도 아주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 몇 명이 모여 여행 가이드나 리더없이 함께 하는 소그룹 여행이 유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들이 하는 여행의 대부분은 단체여행이며, 일본의 단체여행은 그 역사가 길 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일찍이 중세로부터 절이나 신사의 참배와 관련하여 발전한 오시(御師)·센다츠(先達)제도 및 도시와 농촌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코(講) 조직 등을 그러한 조직기반의 예로 들 수 있다. 순례여행, 참배여행으로 시작된 일본인들의 집단여행은 현대에 들어 각급학교에 의한 수학여행, 회사원들을 위한 정기적 위안여행, 연수여행, 농촌부락의 여행, 각 조직의 간부여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회사를 안에 조직되어 있는 공제회내지 공제조합 등은 전통사회에서 여행을 가능하게 하였던 결사체의 일종인 코의 기능을 일부 전승하고 있다. 또한 전후 크게 발달한 일본의 여행업은 현대사회에서 단체여행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조직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 교통체계의 효율성도 손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관광의 독특한 행위유형으로 드러나는 일본인들의 단체여행, 집단여행의 역사 및 사회조직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 문화의 일면을 이해해 보려

¹⁾ 매년 일본정부(總理府)에서 발간하는 『관광백서』에 따르면 옛고로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여행은 계속 감소해 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한 해 동안에 일본 국민은 일인당 평균 2.7회, 전체로는 총 3억3천4백회의 숙박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平成 7年度『觀光白書』 1996: 27-28). 해외여행도 1989년 1000만인을 넘었으며 그 중 7-8할 정도가 관광목적의 일반 여행자라 한다.

는 것이다. 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단체여행이 그토록 유행인가, 일본인들의 단체여행의 관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일본인·일본문화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변화는 어느정도 지속적이며, 과연 그러한 변화는 일본인들의 여행행위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해 볼 것이다.

II. 단체여행의 기원

1. 여행의 문화적 의미

일본에서 오락적 요소가 가미된 대중관광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7세기 이후 부터로 생각되고 있다 (Vaporis 1994; 권숙인 1997 참조). 그러나 그 이전의 시기에도 군사적, 정치적, 상업적 혹은 종교적 목적에 의한 사람들의 이동은 많이 있었다. 특히 고대 일본사회에서의 여행은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의 이동이나 일선을 향하여 출정하는 병사들의 이동 등 대부분의 여행이 정치나 군사와 관련된 것이었으며,²⁾ 따라서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우선 군사적 목적의 이동에서는 항상 부상당하거나 죽을 위험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일단 자신들이 사는 지역과 자기집을 떠난 사람에게는 산적이나 노상강도의 위험, 끊어 죽을 위험, 얼어 죽을 위험 등 온갖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특히 내부집단 지향성이 강한 일본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나 떠돌아 다니는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가 더욱 강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행에 따르는 이러한 위험은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다 (加藤秀俊 1976; Yoshida 1981; Martinez 1990).

일본의 전통사회에서 발견되는 여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금기나 관습들은 이러한 여행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비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의 여행에 관한 가장 오래 된 기록이라 할 수 있는「魏志倭人傳」에는 일본에서는 가족의 누군가가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벗지 않고, 이도 잡지 않으며, 의복은 때가 묻어 있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하는 데 이러한 관습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죽음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조심함으로써 여행을 떠난 가족원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加藤秀俊 앞 글: 158). 오늘날에 일본 각지에서 발견되는 ‘카게젠 (陰膳)’의 풍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³⁾ 즉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는 집에서 마치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듯이 매일 밥상을 차려 올림으로써 집 떠나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안전을 기원하는 의

²⁾ 실제 여행을 나타내는 일본어인 ‘타비’의 한자인 旅는 ‘떠돌아 다닌다’거나 ‘여행한다’는 의미 이외에 ‘군사’라는 의미와 ‘무리’라는 의미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加藤秀俊 .1976: 159).

³⁾ ‘카게젠’이란 陰膳 혹은 蔭膳으로 표기하며, 아테젠 (宛て膳)이라고도 한다. 집을 떠나 얼마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혹은 그의 수호신을 위하여) 음식을 올립으로서 당사자를 축복하고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습속으로 여행 떠난 사람이 길에서 배가 끊지 않도록 하는 주술적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한다 (大塚民俗學會 編 1972: 138-9).

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일본 사회에서 여행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장을 하거나 집단으로 여행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무기의 규제가 엄격해진 도쿠가와 시대에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평민이라도 호신용으로 허리에 차는 칼(한자 여덟자 이하)의 휴대가 허용되었으며, 또한 자위(自衛)와 안전을 위해 거의 모든 여행이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수백명의 단위로 이동하였던 다이묘(大名)의 행렬은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의 풍물이었으며, 일반 평민들의 경우도 이세참공 등에 나설 때는 몇 명씩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농촌 공동체에 널리 발달한 종교적 코(講)의 조직은 집단여행의 기초가 되었다.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코의 회원들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이웃하는 마을의 코 회원들이 함께 여행하였으며 그럴 경우 숫자가 수백에 이르는 경우도 혼하였다. 이처럼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은 시위효과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여행길에서 병들거나 부상 당할 경우 돌보아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사정상 부득이 혼자서 여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도 그의 갓에는 「同行二人」이라고 쓰기도 하였으며 (加藤秀俊 앞 글: 161; 神崎 1990: 182), “여행은 길동무(たびは みちづれ)”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에도시대라 한다 (Vaporis 1994: 231)

2. 신앙과 여행의 조직화

일본사회에서 종교적 목적의 여행 즉 성지참배라는 형태의 여행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대개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를 전후하여서부터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星野英紀 1986: 234). 유명 신사나 사찰에 대한 참배는 귀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헤이안기에 들어 점차 귀족들에 의한 토지의 소유가 확대되면서 부유해진 귀족과 황족들이 특정의 신사나 사찰에 머물면서 참배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성지참배의 등장은 일본의 여행문화에서는 새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 시기 고대 일본사회에서 ‘타비(旅)’의 주를 이루었던 군사적, 정치적 목적에서의 여행이 자발적이거나 즐기기 위한 여행이었다가 보다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한 이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종교적 성지참배는 여행자 스스로의 “내발적 충동”에 의한 여행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加藤秀俊 1976: 166-167).

헤이안 귀족들에 의한 참배여행의 대상은 처음에는 주로 교토(京都)와 나라(奈良) 등을 중심으로 하는 키키(近畿)지방에 한정되었으나,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종교조직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철폐됨에 따라 그 제정을 귀족들의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신사나 사찰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귀족들의 참배여행을 주선하기 시작함에 따라 10-11세기에는 지역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귀족들의 방문은 신사나 사찰의 유지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만큼 특히 교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사나 사찰들은 적극적인 연구를 통하여 귀족들의 유도를 꾀하였으며, 당시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오늘날의 와카야마(和歌山)현과 미에(三重)현의 남단에 해당하는 기이한(紀伊藩, 紀州)에 위치한 쿠마노 (熊野) 신사였다.⁴⁾

본래 제사신의 품격도 그다지 높지 않고 길이 험한 기이반도 남단에 위치하였던 이 신사는 참배객의 유치가 어려워 일찍부터 효과적인 유치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쿠마노모데(熊野詣)’로 알려진 이 참배여행은 그 선전이나 안내, 참배객의 규모나 조직화 등의 면에서 본격적 의미의 여행 세일즈의 시작이며, 또한 오늘날 일본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체여행의 효시로 생각되고 있다 (白幡 1996: 191). 쿠마노 신사의 ‘세일즈 전략’은 우선 첫 째로 신사의 일반적 속성의 하나인 씨신적(氏神的) 폐쇄성을 타파하고, 다양한 신도(神道)의 금기를 완화하여 귀족은 물론 승려나 일반민중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참예(參詣)의 자격을 개방하는 경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신사측에서 직접 사람을 각지에 파견하여 참예희망자들을 소집하여 쿠마노에 이르는 험한 여행길을 안내하여 데려오는 것이었다. 오시와 센다츠를 이용한 쿠마노의 여행안내체계는 오늘날의 여행업, 관광업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조직적이고 발달된 것이었다.

III. 여행의 사회조직

1. 오시(御師)·센다츠(先達)의 기능

앞서 언급한 쿠마노모데는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 대중화 된다. 즉 고대 일본에서는 황족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으나, 헤이안 시대에 이르러 귀족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며, 카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3)에 이르면 東國의 武士들이 참여하고 다시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336-1573)에 이르러서는 繩內의 부유한 농민들까지도 熊野詣를 행하게 되고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 초기에는 서민들까지 확대되었다 (石森 1989). 중세기에 발달한 쿠마노 참예가 그토록 크게 성행하고 일반 평민들에게 까지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오시(御師)라 불리던 숙박업자들과 센다츠(先達)라 불리는 여행 안내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지역을 분담하여 참배객들을 모집하고 여행도중의 숙박과 식사 등을 비롯하여 참예를 마칠 때까지 전과정을 조직하였다.

오시(御師)란 본래 쿠마노삼산(熊野三山)에 소속된 하급의 신직(神職)으로 신사 근처에서 참배자들을 위한 숙박소를 경영하던 사람들이었으며, 센다츠(先達)란 오늘날의 가이드에 해당하는 길 안내자를 말한다. 후에 종교적 참배여행이 더욱 대중화 되면서 참배 여행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초심자들을 안내하는 센다츠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쿠마노의 경우에는 삼산(三山)의 지배하에 있는 야마부시(山伏: 山野에 기거하는 修道者. 野伏이라고도 함)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야마부시들은 센다츠의 칭호를 부여 받아 전국에 산재해 있었으며, 쿠마노의 지방영업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쿠마노 참배를 권유하고 참배자들을 쿠마노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하였는데 쿠마노 참배는 출발에서 도착까지 여러가지 의식이 필요하며 센다츠들은 이러한 의식에 대한 책임도 지니고 있었다. 센다츠의 안내에 의하여 참배단이 쿠마노에 도착하면 그곳의 오시들이 현지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어 주는 오늘날의 호텔업, 관광업자의 역할을 담

⁴⁾熊野神社는 熊野本宮, 新宮, 那智社를 합쳐서 熊野三山이라 칭한다.

당하였으며, 이들 오시·센다츠들은 ‘카스미’라 일컬어지는 분명히 구분된 각자의 영역내에서 활동하였다 (加藤秀俊 앞 글: 169). 중세기 교통이 아직 불편하고 여행이 위험했던 상황에서 길이 험한 쿠마노까지의 대중동원이 가능해진 것은 오시와 센다츠로 구성된 여행안내체계의 성공적 조직에 있었으며, 熊野信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白河院, 鳥羽院 등이 수백인의 대편성 참예단을 이끌고 연도의 인민들을 차례로 동원하여 물자를 조달시켜가며 기이반도에 이르는 험한 길을 여행해 갔다고 한다 (加藤秀俊 앞 글: 168).

오시·센다츠의 조직은 에도시대에 이르러 이세참궁(伊勢參宮)을 일반인들에게까지 대중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Vaporis 1994: 242-243).⁵⁾ 이세신궁은 본래 조정의 평안을 기원하던 곳으로서 일반 평민들의 사적인 기원은 허락되지 않았으나 카마쿠라시대가 되면 일반의 公家나 武士층에 이세신앙이 확대되며, 이세의 오시(御師)들은 이들이 국가의 태평을 위해 바치는 기도를 대신해 주던 신주(神主)들이었으며 (白幡 1996: 14-15),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말 넣는 신주 (口入れ神主)’라고도 칭하였다 (神崎 1991: 8). 또한 오시(御師)나 센다츠(先達) 혹은 교자(行者)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에도시대에 이르러 포교자(布敎者)로 지역사회의 주민들 간에 신앙적 욕구를 일으키고 지역사회 밖에 존재하는 神社나 佛閣, 기타의 종교적 상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상호부조 조직인 코(講)를 조직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점은 소규모 지역신의 경우에 비해 국민적 신앙의 대상으로 발전한 熊野·伊勢·戸隱·三峰·大山 참배 등의 경우는 더욱 뚜렷하다. 특히 오시들은 에도시대에 있었던 세 번의 대대적인 이세참궁의 불 (1705년, 1771년, 1830년)을 일으키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며 (Vaporis 1994: 243-244), 이세참궁자는 에도중기에 이미 년간 100만인을 넘었다고 한다 (神崎 1991).⁶⁾

이세신궁의 오시들은 정기적으로 지방을 돌며 단가(檀家)를 개척하였고 유력한 오시의 경우 단가가 10만호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그들은 일년에 한 번 늦은 겨울이나 이를 봄에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포교하고자 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부적과 토산물 혹은 차나 부채, 분 (오시로이라고 하는 이세의 명물) 등을 나누어 주고, 천하태평(天下泰平), 가내안전(家内安全), 오곡풍양(五穀豐穰)을 비는 기원 등을 대행해 주기도 하였다. 配札檀回制度라 일컬었던 이러한 신궁의 부적을 나누어 주는 관습은 명치유신 후 지방관청을 통하여 배포하는 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급속히 쇠퇴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오시가 방문하면 마을의 講員들은 ‘이세님, 이세님’이라 부르며 마치 신을 대접하듯 정중히 오시를 대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처럼 부적을 배포하기 위하여 마을을 도는 사람은 오시 자신인 경우보다는 그의 대관 (代官)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櫻井 1962: 259). 지방을 순회하는 오시를 신성시하는 것은 이세신앙이 발달하면서 국에 날하여, 부락에 따라서는 마을을 방문하였던 오시가 발을 씻거나 목욕한 물을 받아 두었다가 병들거나 하였을 때 그 물을 성수(聖水)로 마시기도 하였다 한다 (櫻

⁵⁾이세참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권숙인(1997)을 참조할 것.

⁶⁾1995년 1년간 이세시를 방문하여 신궁에 참배한 자는 약 700만명이자 하며 그 중 400만명 정도가 년말, 년초의 참배자였다고 한다 (1996년 伊勢 市役所 직원 면담자료).

井 1962: 259). 그러한 일이 반복됨에 따라 부락민들과 오시사이에 ‘사단관계(師檀關係: 오시와 단가의 관계)’가 성립되어 오시들은 지역사회의 코회원들과 신궁사이를 맺어 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오면서 오시들은 이세신궁과 절연하고 각자 독립적인 ‘말 넣는 신주(口入れ神主)’가 되기도 하였으며, 상업활동에 더욱 힘쓰게 되어 사실상 에도시대의 오시집단의 실태는 신직(神職)이라기 보다 상인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神崎 1991: 8). 에도시대에는 또한 오시들에게 太夫 (師職名의 일종)라는 칭호가 부여되었으며, 그러한 칭호는 일종의 주식으로서 재산의 일부로 매매되거나 세습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오시 칭호의 개인적 이전을 금지하고 18세기 중반부터는 새로운 사직(師職)을 세우지 않고, 5년마다 사직의 株數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등 여러 조처가 취해졌으나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시들은 계속 늘어나 18세기 초엽 이세참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이세에서 활동하는 오시들이 외궁에만 600여명 이상에 달하였으며,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오시들의 활동은 동북지역을 제외한 일본전역에 이르게 된다. 또한 오시들에게 일종의 고객으로 파악되었던 각 지역사회의 단가(檀家)들의 수는 4백만호가 넘었다고 한다. 오시들의 활동은 대체로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사단관계(師檀關係)가 항상 하나의 읍(町)이나 마을(村)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 촌내에도 몇 명의 오시가 들어 와 단가를 나누는 예들도 발견되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오시들간의 갈등도 적지 않았으며, 무로마치 시대에는 대규모의 집단항쟁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었다 (神崎 1991: 9-10).

오시·센다츠들은 기도나 숙박업뿐 아니라 전체적인 순례여행을 조직하고 안내하며, 안내하는 도중의 숙박지의 확보, 식사의 주선까지 전부 도맡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일본 여행업의 원조(元祖)라 할 수 있다 (神崎 1990). 그들의 상업활동은 우선 각 지역을 방문하여 물건을 파는 것으로 애초에는 앞서 언급한 配札檀回制度 즉 단가를 방문하여 신궁의 부적을 전할 때 많은 액수의 기도료를 낸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으나 후에 상품화 되었다 한다 (神崎 1991: 12). 오시들의 수입은 단가를 돌며, 물건을 팔고 기도료를 받는 것 이외에 참배객들이 이세에 도착하면 숙박업소를 제공하여 얻는 것이 있었다. 이세참궁의 여행은 거의가 단체여행이었던 까닭에 이러한 숙박객의 수는 상당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오시의 집에 묵는 단가들은 御供料 (神饌料), 神樂料, 神馬料 등을 봉납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神崎 1991: 13).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도료로서 오시의 수입이 되었으며, 이세 신궁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단가들에 대한 접대 또한 오시들의 영업활동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었다. 중요한 단가들에게는 큰 향연을 베풀었으며, 그러한 파티에서는 좋은 음식과 카구라(神樂)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중세 이래 천황이나 귀족 혹은 무사들의 기원을 신궁에 중개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였던 오시들이 그러한 고객들을 대접해야 했던 데서 생겨난 것이나 에도 후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활동으로 이행된 것이었다. 이러한 향연은 오시들의 선진을 겸한 것이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훌륭한 대접을 받은 손님들이 마을에 돌아가 그려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전하기 때문이었다.

민속학자인 칸자키는 에도 중기에서 말기에 걸쳐 보인 오시들의 상업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그 내용에 오늘날 여행업의 기본적인 업무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神崎 1991: 15-16).

- | | |
|------------------------|--------------------------|
| 1) 檄家의 관리 (고객관리) | 7) 參宮의 안내 |
| 2) 講의 조직화 (패키지 투어의 기획) | 8) 宴會의 준비 |
| 3) 講金의 관리 (여행 적립금의 운용) | 9) 숙박장소의 주선 |
| 4) 道中手代 (투어 컨더터)의 파견 | 10) 선물의 주선 (소개 및 기념품 증정) |
| 5) 出迎 및 送迎 | 11) 古市의 안내 (특히 밤생활의 안내) |
| 6) 기도 | |

오히려 여행안내와 숙박업을 병행하는 오시들의 활동은 오늘날의 여행업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오시·센다츠 중심의 이러한 포괄적인 여행안내체계는 명치이후 서구적 여행업의 영향으로 해체되면서, 여행일선업과 숙박업, 선물가게 등으로 전업화(專業化)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종교적 순례와 코(講)의 조직

여행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기능이었던 종교적 코(講) 조직의 존재는 일반인들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코」란 우리의 계(契日)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일종의 상호부조조직으로 타노모시코 (賴母子講)과 같은 순수한 금융조직도 있었으나, 중세이후 종교적 순례여행이 확산되면서 伊勢講, 白山講 등과 같이 특정의 신사나 사찰에 대한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조금씩 돈을 내어 그 중 대표자를 代參者로 하여 여행을 보내는 여행 금융조직이 크게 발달하였다. 종교적 성격을 지닌 코에는 본래 불교신앙을 기초로 한 것들이 역사도 깊고 규모도 큰 것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日蓮宗계통의 身延講, 法華宗의 講, 혹은 직인(職人)들이 치바현 나리타시의 不動明王을 참배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던 나리타코(成田講), 중부일본에 널리 퍼져 있었던 善光寺講, 四國의 88개 절의 巡排를 위한 大師講 등이 있었다. 이에 비해 신사신앙(神社信仰)의 경우 본래 그 규모나 숫자가 적었으나, 오시·센다츠의 활약으로 인하여 재래 지방신앙의 모습을 변형시켜가며 많은 유명 신사의 參拜講, 代參講들이 발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퍼져 있던 것들로는 이세코(伊勢講), 쿠마노코(熊野講), 후지코(富士講) 등이 있고 그 외 각 지역마다 유명한 신사나 灵山들을 중심으로 하는 코 조직이 발달하였다 (櫻井 1962: 246-7; Vaporis 1994: 242).

御師, 先達, 道者, 行者, 法印 등 반 종교적 인물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코의 경우 자연집단을 넘어 대규모적으로 조직된 사례도 많았으며, 참배를 마친 후 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회구성이 비교적 단일한 미맥(米麥) 중심의 단작지 등에서는 풍년 등을 기원하기 위한 신앙에 기초하여 지역성이 강한 代參講이 조직되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전도자 개인의 종교적 매력에 의해 결성된 코와 같이 열광적인 면은 없었으나 지역사회생활에 기초하여 부락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그런 코들은 한 부락 전체가 회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코의 조직은 부락의 조직을 대신하

기도 하였으며, 그럴 경우 매년 정초에 부락민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함께 먹으며 代參者를 뽑아 참배여행에 보내고 돌아 올 때면 「사카무카에 (坂迎)」라 하여 다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환영식을 열고 그 후 대참자가 神札(부적)을 배포하곤 하였다 (櫻井 앞책: 248-249).

에도시대에 순례여행의 대중화와 더불어 성행하였던 이세코의 조직은 3-4호로 한 조(組)를 결성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락 안에서 회망자만 하는 경우 또는 한 부락, 한 초나이(町内) 전체가 한 조가 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호가입의 예가 비교적 많았다고 한다 (櫻井 1962: 257). 명칭 또한 매우 다양하였으나 가장 많았던 것이 이세코(伊勢講), 신메이코(神明講)였다. 이세코의 회원(講中)들은 년 1-2회 혹은 수차례씩 날을 정하여 '코야도(講宿)'에 모여 회비(講金)를 걷거나 참궁할 대표자를 뽑는 등의 회의를 하였다. 코에서는 대참자가 필요로 하는 왕복여비와 부적의 구입비용, 카구라(神樂) 진상을 위한 경비 등은 코회원들의 출자금이나 '코의 재산(講銀)'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코의 회원들로부터 경비를 염출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비용의 전부내지 일부를 타노모시(賴母子)·무진(無盡)의 방법으로 적립하여 낙찰된 사람으로부터 순번으로 대참(代參)하거나 혹은 부락이 가지고 있는 전답·산림의 일부를 그 비용으로 하여 그것을 伊勢講田·伊勢山·神明山 등으로 부르고 있는 마을들도 많았다.

대개 회원을 일년에 한 명씩 돌아가며 이세에 보내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달 한 명 씩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혹은 3년내지 5년에 한 번씩밖에 보내지 못하는 예들도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 따라서는 마을 전체의 코회원이 다함께 이세참궁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⁷⁾ 또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혹은 여행시 동반을 위해 이웃하는 마을들의 코집단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참배여행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 한 번에 수백명이 함께 여행하기도 하였다. 코의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한 집안의 가장인 남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여성들의 경우도 특정의 순례집단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에도시대의 중엽부터는 여성들만의 코 조직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Vaporis 앞책: 243). 또한 '와카슈(若衆) 이세코'라 하여 이세참궁을 '와카모노쿠미 (若者組)⁸⁾'의 입단식과 결합시킨 부락도 있었다.

대참자로 정해진 사람은 순례여행에 떠나는 날까지 다른 가족원들과 생활을 같이 하지 않고 떨어져 조심하는 생활을 하며 매일 신사에 참배하거나, 일체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고 출발일을 기다렸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집 주변에 대나무를 세워 마치 신사처럼 신성하고 깨끗한 영역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꽂은 대나무들은 대참자가 참궁을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모두

⁷⁾이러한 사례들은 특히 에도시대에 있었던 세 번에 걸친 대대적인 오카게마이리(お蔭まいり): 여행비용을 갖지 않고 시주에 의존하여 하는 참배여행을 말함) 때 많았다고 한다 (Vaporis 1994: 244).

⁸⁾일본 촌락사회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연령집단의 하나. 대개 14-5세경부터 결혼전까지의 젊은 이들이 회원이 됨. 문옥표 1994 참조.

뽑아서 태웠다 (櫻井 1962: 260). 또한 군마현(群馬縣) 북부·서부 지역에서는 대참자로 당첨되면 그 집 마당 안에 그해 새로 수확한 벗짚을 사용하여 ‘오카리야(假屋)’라고 하는 간단한 신사(神祠)를 만들어 거기에 참궁자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아침 ‘카게젠(陰膳)’을 올려 도중의 안전을 기원하는 지역도 있었으며, 또 나가노현(長野縣)의 일부에서는 집의 마당이 아니라 별도의 땅에 코야(小屋)을 지어 떠나기 전 그 안에서 정진(精進)하기도 하였다. 사사참에(寺社參詣)를 중심으로 하는 근세이후의 민중의 여행은 단독여행인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코(講) 등을 조직하여 하는 단체여행이었다. 코의 조직은 하나의 마을이 하나의 코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이웃하는 몇 개의 마을이 함께 코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코 조직으로서 함께 여행하게 되는 경우 회원들은 엄격한 규약을 만들어 지킬 것을 약속하였으며, 일단 규약에 따르기로 맹세한 회원들에게는 길마다 발을 다치 말을 타야할 경우 코의 비용에서 반을 부담해 준다거나 여행길에서 돈이 떨어지는 경우 다른 회원들로부터 빌릴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Vaporis 앞 책: 231) 뿐만 아니라 여행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예도 매우 흔하였다. 예를 들어 東北山村 등에는 오늘날까지도 코를 통하여 이세참배에 동행하였던 친구들이 귀향 후 서로 부르면 「이세쿄다이(伊勢兄弟)」, 혹은 쿠마노참배를 같이 했던 「쿠마노쿄다이(熊野兄弟)」 등의 호칭이 남아 있다고 한다 (加藤 1976: 180).

3. 세속적 여행업의 조직화

일본은 에도시대까지 쇄국정책으로 해외여행은 일반민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국내여행은 크게 성행하였다. 일본인의 국내여행은 주로 순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근세초기부터 세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관광이나 온천방문, 치료여행 등과 결합하여 발달한다. 에도시대의 대표적 순례지로는 이세(伊勢), 젠코지(善光寺), 콘피라(金毘羅), 시코쿠(四國)의 88순례지 및 사이코쿠(西國)의 33개 절순례 등이 있었으며 이를 순례여행은 장기간의 평화시대를 통하여 대중관광의 형태로 발전한다. 오락을 위한 관광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종교적 순례여행이나 치료를 위한 온천방문 등은 허용되었으며 이러한 여행들은 실제로 많은 오락적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여행의 상업화는 17세기후반부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성장산업으로 정착된다. 대중적 여행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였던 하부구조적 요인으로는 도로망의 발달과 숙박업소의 발달이 있다. 토쿠가와 시대의 산킨코타이(參勤交代) 제도는 이와같은 여행의 하부구조 발달에 크게 기여하여 17세기에 이미 토쿄(東京)의 니혼바시(日本橋)를 기점으로 하는 5개의 카이도(街道)가 발달하였으며, 각 가도에 수십개의 세키소(關所)가 설치되어 여행객들을 통제하고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세키소들은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쉬는 곳, 정보센터, 유락지, 숙박지로 발달하였다. 또한 세키소를 중심으로 음식점, 찻집 등 발달하고 매춘업이 성행하여 아카사카(赤坂)나 미시마(三島) 등의 세키소는 매춘업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매춘업을 통하여 여행객을 유치하는 지역이었다. 그 외 세키소에서는 말, 가마 등을 제공하였으며, 수하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지역도 있었다. 에도시대에는 또한 5개 가도이외에도 水戸路, 美濃路, 伊勢路, 中國路 등의 도로가 준(準) 가도로 정비되었다 (神崎 1991:3)

18세기에는 지역단위 숙박업자들의 조직이 등장하여, 나니와코 (難派講: 에도시대 대판지방에 있었던 여관조합), 산토코 (三都講: 에도, 오사카, 교토를 연결하는 여관조직으로 교오토에 본사가 있었다), 아즈마코(東講) 등이 유명하였다. 이들 에도시대의 여관조합들은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회원업소끼리 연락을 통하여 이동해 갈 경우 숙박을 보장하였으며, 선박 등과의 연결을 통하여 교통편의와 수하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하였다. 조합에 속한 숙박업소들은 또한 입구에 조직의 로고를 제시하여 동일 계통임을 표시하고, 상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여행객들은 그러한 표시를 한 점포들을 연결하여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Vaporis 1994: 230).

4. 센베츠(錢別)와 오미야게 (おみやげ)의 문화

관광이나 여행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동기나 행태를 연구하며 나아가 여행객들이 방문하게 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관광행위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에 덧붙여 여행을 떠난 사람과 뒤에 남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加藤秀俊 1976; Graburn 1983). 우리가 위에서 언급하였던 여행 중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켰다던 여러 가지 금기의 풍습이나 또는 카게젠(陰膳)의 풍속 등에서 여행을 떠나 있는 중에도 가족이나 마을 등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밀접한 연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카게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가족원이 이세참궁의 길에 나서게 되면 문 앞에 「카도지메(門注連)」라 하여 두 개의 대나무를 세우고 금줄 형식의 짚으로 된 줄을 매어 표시한 후 매일 저녁 그 나무의 밑부분을 더운 물로 씻어 여행지에 나가 있는 가족원의 피로가 풀리도록 하는 주술신앙이 발견되기도 한다 (櫻井 1962: 263).

카게젠이나 카도지메 등의 관습은 여행을 떠난 사람 자신의 가족원들이 가지는 관심과 염려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단순히 가족원 뿐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여행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한 예로는 일본 각처에서 발견되었던 「사카무카에(坂迎)」 풍습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마련해 마을에서 떨어진 약간 높은 고개 위에 나아가 돌아오는 사람을 마중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의해 쇠약해진 여행자가 심신의 활력을 얻도록하고 다시 공동체로 맞아 들이는 의미를 가진 관습을 일컫는다 (櫻井 1962: 248; 加藤 1976: 174). 오늘날에도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올 때면 마을사람들이 폐지어 마을밖까지 나아가 사카무카에를 하는 마을이 남아 있으나, 과거에는 특히 代參여행을 떠난 코의 회원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참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마을 전체가 나아가 맞이하는 관습으로 널리 행하여졌다.

이처럼 여행을 떠나 있는 중에도 집단에의 귀속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문화적 기제로는 '전별(餞別, 센베츠)과 선물 (土産物, 미야게모

노)이라는 증답(贈答)의례를 들 수 있다. 일본사회에서 단체로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연적인 집단의 성원 모두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는 어떤 상위 집단이나 공동체의 일부가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러한 경우 상위 집단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송별회를 열어 주고 뒤에 남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여행을 떠날 사람에게 송별선물로 전별(餞別)을 주는 관습이 널리 행해진다. 에도시대의 代參講의 경우 회원 중에서 출발되어 代參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講의 부금을 여비로 하여 여행을 떠나지만 그 이외에도 餞別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코 조직이 아닌 일반인의 여행의 경우도 주변의 이웃이나 친척 혹은 공동체의 회원들로부터 전별을 받게 된다. 카토에 따르면, 이와같은 관습은 전별을 통하여 남아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여행에 의사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것, 다시말해 전별이란 여행에 대한 “상징적 참가비”的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加藤 1976: 175).

결국 일본에서는 전별의 관습이나 코의 제도 등으로 해서 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각출금이나 기부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한편 여행하는 사람 측에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행을 다녀와 전별을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관습이 있다.⁹⁾ 오늘날 선물을 흔히 ‘上産(みせけ)’이라고 표기하나 본래 그것은 宮(きゅう)였다고 하며, 講의 신앙의 대상인 성지나 신사에서 입수할 수 있는 성스러운 부적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오늘날 선물은 물론 종교적 부적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부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것은 여행자가 “방문한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기념물이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의미를 지닌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진 상징물”이어야 한다 (Graburn 1983: 45). 그것은 전별을 건네 줌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여행자와 함께 여행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여행자가 가져 오는 선물은 여행의 경험을 공동체로 가져오는 의미이며, 선물을 끝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별을 준 사람은 당연히 선물을 기대하게 되고 여행자 자신도 여행 중 끊임 없이 뒤에 남아 있는 자신의 공동체 성원들을 기억하여 선물을 구하며 또한 여행자가 집에 도착하면 적절한 의식을 갖춘 환영식을 열어 여행자가 선물을 나누어 줄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된 代參講에서 代參 여행자를 환영하고 부적을 나누어 받기 위해 열렸던 마을 잔치의 경우가 그러한 대표적 예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환영식은 또한 일시적으로 집단을 떠나 있던 성원들을 다시 집단으로 받아들여 평상으로 되돌아 가기 위한 의식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행과 관련된 이와같은 관습들이 상징하는 것은 집단에의 소속이 일본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이다. 즉 집단의 소속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의 일시적 이탈을 의미하는 여행은 출발부터 여러가지 의식을 통하여 극화되며, 여행 중에도 여행자 측에서나 집에 남은 사람들 편에서나 끊임 없이 집단과의 관계가 기억되며, 또한 여행에서 돌아와 집단으로 다시 통합되는 단계 역시 의례를 통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⁹⁾ 대개는 전별 액수의 반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선물을 사며, 선물을 받을 사람의 계층이나 성별, 연령 등이 고려 된다 (Graburn 1983:44).

IV. 현대적 단체여행의 발달

1. 단체여행의 근대화

오늘날 여행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일본인들의 독특한 관행의 많은 부분은 에도시대 이전 중세기부터 빌전되어 온 전통적 여행문화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첫 째로 순례여행과 관련하여 농촌에 널리 퍼져 있던 코 조직은 오늘날 거의 사라져 버렸거나 남아 있더라도 과거와 같이 여행금융조직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으나 코에서 볼 수 있는 상호부조 조직의 원리는 오늘날 기업내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의 공제조합이나 친목단체 등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면에서는 농촌의 농협과 같은 조직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사실상 농협과 같은 대규모 금융조직의 발달은 과거와 같이 몇 년을 걸쳐 여비를 적립하여 한 명의 대표참석자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 회원이 함께 여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근세 이전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 조직이었던 코(講)가 형성되기 위하여는 講元이란 명칭의 일종의 계주(契主)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였는데 명치 이후에는 학교나 회사와 같은 근대적 조직들이 그러한 講元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수학여행 (修學旅行)

명치시대 이후 새로운 여행의 주체로 등장한 것의 하나는 각급 학교였다. 학생들에게 의한 수학여행의 시초는 1886년 (명치 19년) 토교사범학교에서 실시한 ‘長途遠足’이었다고 한다. 그 후 수학여행은 계속 증가하여 1993년, 94년 일본수학여행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소학교의 93%, 중학교의 97%, 고등학교의 93%가 수학여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定時制 고등학교의 68%를 포함한 비율인 깎닭에 전일제(全日制) 고등학교만 보면 거의 100%가 수학여행을 실시한 셈이 되며 참가율도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한다 하였다 (日本修學旅行協會 1996, 白幡 1996:108에서 재인용). 따라서 일본인에게 수학여행이란 누구든지 일정 연령에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행사로 일종의 통파의례가 되어 있다.

수학여행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그것이 교육의 일부로 행해지는 여행이라는 점이다. 명치초 처음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것은 학생들의 신체를 단련시켜 부국 강병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었다 하며,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들로부터 솔선하여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888년 제3고등학교에서 겨울방학에 실시한 수학여행은 도보로 행군하는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발화연습 (發火演習) 등 군대풍의 행사도 들어 있어, 견학여행과 신체단련, 군사훈련을 합친 형태의 행사였다 한다 (白幡 1996:114). 그러나 철도의 개통이 시작된 이후에는 학생들에 대한 할인제도 등을 통하여 점차 기차를 이용한 수학여행이 보편화 되었다. 수학여행에 대한 특별할인의 시작은 1890년(명치 23년) 도쿄에서 열린 국내권업박람회를 견학하러 가는 학생들을 위하-

여 일본철도회사가 책임교사 인솔하에 50인 이상으로 대오를 형성하여 상경할 때에 운임을 3할 할인하여 제공한 것이었다.

명치 초 수학여행의 보급은 당시 문부성의 방침으로 1890년대에 들어서는 심상(尋常) 소학교에까지 수학여행이 도입되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수학여행의 성격은 소학교 학생들에게는 균교의 자연관찰, 풍경감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원족(遠足), 중학생들에게는 보다 넓은 지역의 지리·역사 학습을 포함하는 도시의 근대적 문명시설의 견학, 사범학교 및 고등학생들에게는 대륙의 전쟁지역까지 가는 장기의 수학여행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특히 노일전쟁이후에는 상급학교 학생들에게 ‘忠君愛國’의 정신을 교육시킨다는 명분아래 여순(旅順), 봉천(奉川), 요양(遼陽) 등 전쟁지역으로의 수학여행도 장려되었다 한다 (白幡 1996: 125). 후에 이차대전이 진행되면서 해외여행은 점차 어려워졌으나 각급학교의 수학여행은 伊勢, 奈良, 京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참궁여배(參宮旅拜)’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현대의 수학여행은 목적지 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에 민박을 통해서 농가생활을 체험토록 하거나, 그외 도자기만들기, 민예품 만들기, 종이만들기, 직물, 염색과정, 어업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수학여행의 일부로 소개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스키 수학여행이 시작되었으며, 8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3년도 조사에서는 전국 고등학교의 21.2% 가 스키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한다 (白幡 1996: 134). 또 하나의 새로운 경향은 해외 수학여행으로 1975년경부터 시작되어 1994년도에는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100개를 넘어섰다 하며 목적지로는 한국, 중국, 미국 본토, 오스트렐리아, 하와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白幡 1996: 135).

수학여행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전원이 동일한 집단행동을 하는 단체여행의 전형적 모습을 띤 것으로 그것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도 많은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학여행이 아이들로서는 처음으로 부모로부터 떨어져 하는 여행이며 새로운 반남의 여행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같은 교실이나 같은 학교 안에서 생활하더라도 잘 알지 못했던 사이에서 수학여행을 통하여 며칠간 같이 밥먹고, 같이 목욕하고 하는 공동생활을 경험함으로서 서로의 알지 못했던 인간적인 면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개성존중의 교육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수학여행이 정해진 코스에 따라 정해진 장소를 견학하고 정해진 식사를 하며 정해진 장소에서 자야하는 등 자주적 측면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지루한 여행으로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찬반론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없으며 명치 초 재도화된 이래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여행문화를 이해하는데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白幡 1996: 112).

(2) 사원여행 (社員旅行)

명치년간에는 학교에 이어 회사도 새로운 講元으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명치 42년

(1909년) 「移六新聞」을 신사옥 낙성을 기념하여 애독자 400명을 嶽島神社로 초대하는 캠펑을 하였는데, 회사가 선전을 겸하여 관계자를 여행에 초대하는 유형은 이때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여행은 오늘날 창업기념, 우수소매점 초대, 추첨에 의한 소비자의 초대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계속되고 있다 (加藤 1976: 171). 특히 昭和期 (1925~1989)에 들어서는 고객만이 아니라 사원(社員)들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여행도 크게 늘어 이미 1950년대말, 1960년대초에 이르면 일본 국내 단체여행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사원여행의 목적지는 대부분 온천지로 회사에 따라 년 1회 봄가을 2회로 나누어 행하거나 하며, 대부분의 회사는 연령층이나 성별 등에 따른 사원들의 희망사항의 조정을 위해 여행계획을 담당하는 간사를 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여비 또한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 코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적립하며 부족한 경우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한다.

1960년대부터 크게 융성하기 시작한 일본회사들의 사원여행의 기본유형은 대체로 남성사원을 중심으로 매년 같은 장소의 온천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마사지와 술자리로 끝나는 것이었으며, 연회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았다 (白幡 1996: 201-20). 60년대 이후 일본내 각 온천지의 여관이 대형화하기 시작한 것은 사원여행을 포함하여, 부인회나 농협 등에 의해 조직된 단체여행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현상이었다 하며 그와 더불어 서비스의 획일화 현상도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온천지의 여관들은 대중대상의 큰 백화점과 같은 형태로 일충에는 대욕장(大浴場), 이충에는 대연회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사원여행의 대부분이 남성인 까닭에 그들의 취향에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안마사를 갖추는 것도 그러한 예의 하나로 1950년대말에 써여진 한 기사에 따르면 아타미(熱海)와 이토(伊東) 두 개의 온천지에만 200명 정도의 안마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한다 (白幡 1996: 206).

사원여행은 근대이전의 지역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회사라는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공동체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사로 놀이의 기회가 적은 셀러리맨들에게 ‘아내와 가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여겨졌으며 일본의 회사나 기타 그에 상응하는 조직생활의 일부로 정착되어 있는 요소의 하나이다.

(3) 기타 단체여행

오늘날의 단체여행은 학교나 회사 혹은 부락 등 여행자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의해 서만이 아니라 철도를 포함한 교통기관, 여행사 등에 의해서 조직되는 경우도 많다. 여행을 조직하고 안내하는 이들의 역할은 결국 중세이래 일본 여행문화의 전통인 오시·센다츠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명치기 이후 여행사들에 의한 단체여행 조직의 시초는 1903년(명치 36년) 「日本旅行」이라는 여행사의 창업자인 南新助에 의해 조직된 高野參詣團 및 伊勢參詣團의 조직이었다 (白幡 1996: 192-193). 참예단체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그에 힘입어 「일본여행」은 종교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대륙시찰단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여행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근대이전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참예여행의 직접적 계승이라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여행사의 역

할은 바로 에도시대의 오시(御師)들이 담당했던 역할이었다.

여행사 이외에 철도청의 경우도 승객을 늘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단체여행을 조직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교통기관이나 여행업자들에 의한 단체여행의 조직과 유치는 우선 운임이나 여비를 할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미 1890년대에 수학 여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할인이 제도화 되었으며, 운임 뿐 아니라 여관비 등도 단체로 여행할 경우 거의 반액 정도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일본에서도 매우 흔한 것이다. 이러한 운임의 할인은 반드시 서비스의 할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단체여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는 여관 등 여행시설 자체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관이나 대형 민숙(民宿) 등 전통적 일본의 숙박업소에는 큰 연회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여흥을 위한 무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일본의 여행지에서는 단체 손님에 밀려 개인 여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여비할인 이외에 일본의 철도성은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단체여행객의 획득에 나서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예로는 昭和 초기 철도성에 의해 전국 각지에 설립된 「月掛旅行會」들을 들 수 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OO여행회」로 불리었던 「月掛旅行會」들은 매월 일정액의 여행비용을 적립하여 함께 여행하도록 하는 조직으로 각 지방 철도국의 지도아래 운영되었다.¹⁰⁾ 이들 근대 이후의 「여행회」들은 어느정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코(講) 조직과 유사하였으나, 멤버쉽의 면에서는 사사참예를 중심으로 하는 이세코(伊勢講), 후지코(富士講) 등과는 별도의 회원을 갖고 있었다.

이차대전 이후에는 국민체육대회 등 각종의 스포츠 행사를 중심으로 단체여행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사찰이나 신사 등의 재건과 더불어 이를 종교 단체에 의해 유치되는 단체여행도 크게 늘어났다. 이를 유명 신사나 사찰의 大祭나 복원 기념행사에는 10만, 20만의 대대적인 참예단이 조직되었다 한다. 즉 1949년 善光寺에는 15만, 1952년 永平寺에는 50만, 身延山에는 100만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의 참예여행은 일본교통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여행업자들의 알선이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白幡 1996: 197). 일본교통공사는 또한 國鐵會社와 손잡고 1940년대말 50년대 초에 걸쳐 농촌 지역으로부터 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수백명 단위의 대규모 단체여행들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지방 단체여행에는 1948년에 조직된 東北지방으로부터의 이세참예단(伊勢參詣團)을 시작으로하여 1949년에 조직된 관서여행단(關西旅行團), 1951년의 구주일주여행단(九州一周旅行團), 북해도일주여행단(北海道一周旅行團) 등이 있었다. 이차대전 이후 활성화된 농촌지역으로부터의 단체여행은 이전의 코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사사참예 여행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으나, 다만 전후의 단체여행에는 여성들의 참가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또한 이차대전 후 경제부흥과 함께 점차 유해되기 시작한 이들 농촌여성들의 단체 관광여행은 寺社參詣 여행뿐만이 아니라 토쿄나 오사카 등을

¹⁰⁾각지의 여행회들의 운영은 1934년(소화 9년) JTB(Japan Tourist Bureau)가 설립되면서 철도 성으로부터 JTB로 넘겨졌으며 그때 당시 전국에 150에서 200개 정도의 여행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한다 (白幡 1996: 194).

방문하는 도시관광여행이나 기타 명소나 온천지 등을 방문하는 여행 등이 많았으며 분위기도 寺社參詣 여행을 떠나는 가장들의 단체와 달리 밝고 명랑한 것이었다고 한다.¹¹⁾

2. 해외 패키지 투어: '상품화된 관광여행'

에도시대에 이르기 까지는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명치시대에 이르면 오히려 해외여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외국유학이나 해외유람을 권유하게 된다. 해외로 나가는 패키지 투어의 최초에 해당하는 것은 1908년 아사히 신문사가 주최한 「世界一周會」였다고 한다 (中川 1985). 이것은 그 전년도에 요코하마에 지점을 개설한 영국계 토마스 쿠크社의 기획에 의한 것으로 80명 정도가 참가하여 96일에 걸쳐 행해진 여행이었으며, 그 부담액 등의 면에서 서민들로서는 참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지역이 확대되면서 중국대륙이나 남방으로의 여행이 증가하였다. 1930년대초 현재의 주유권의 원형에 해당하는 유람권이 국내만이 아니라 중국대륙방면을 대상으로 하는 '東亞유람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후 중일전쟁이 발생한 1937년까지 일시적으로 일본으로서는 최초의 해외여행붐이라 할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白幡 1990: 448). 이차대전 이후에는 1964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에 이미 해외여행자가 1,000만을 넘었으며 그 중 8할 정도가 관광목적의 여행자로 보고되고 있다 (石森 1991: 76).

이제 해외여행은 시작을 넓히고 일본을 바로 알게 되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며 그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해외여행의 대중화 현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특징은 국내여행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일본인들은 주로 단체여행 내지 그룹투어를 하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것으로 실제 단체여행의 비율은 오히려 국내여행의 경우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¹²⁾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첫째, 단체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 둘째 일본인들은 외국어에 헨디캡을 갖고 있는 까닭에 개인으로보다 그룹으로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 여행하는 것이 보다 안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石森 1991: 83-84). 또한 단체여행의 선호는 전통적인 사사참예 (社寺參詣)의 유형을 답습하는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神崎 1990).

물론 오늘날의 여행업계에서는 전문용어로 패키지 투어와 단체여행을 서로 다른 여행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체여행은 한 장소에서 손님을 모아 모든 여정을 통일행동으로 하는 형태를 말하며 패키지 투어는 여러 개의 다른 장소에서 모인 손님들을 함하

¹¹⁾ 이차대전 이후 크게 늘어난 여성들의 집단여행에 대하여는 새로운 세태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였으며, 특히 단체여행자들의 '방약무인'한 매너에 대한 비판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白幡 1996: 199-200). 여성들에 의한 여행의 증가는 여성해방사상의 영향으로 혹은 주부들에게도 이제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이 생겨난 결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 이전의 여행이 주로 남성중심이었던 까닭에 더욱 주목되었던 면도 없지 않은 듯 하다.

¹²⁾ 해외여행에 단체여행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차대전 이후의 일로 그 이전에는 아직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수학여행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행해졌던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白幡 1996: 221).

여 旅程을 조직하며 여행의 과정 자체에도 단체여행에 비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여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여행은 흔히 지역이나 직장 혹은 학교 등이 같은 전부터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여행인데 반해 패키지 투어는 처음 만나 자기소개가 필요한 모임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차자기는 일본 단체여행의 원조라 할 수 있는 寺社參詣를 위한 코의 경우에도 패키지 투어적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 (神崎 1991: 6). 그것은 각 마을로부터 2-3인의 대참자가 선정되어 그들이 鄉(郡)이나 國(오늘날의 縣) 단위로 여행팀이 짜여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패키지투어 자체도 여행사가 전체적인 여행일정을 계획한 후 참가자를 모집하는 「主催(단체)여행」과, 여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통편과 호텔 등 숙박장소의 예약만을 여행사에게 부탁하여 같은 장소에서 하고 그 외 대부분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소위 「手配(단체)여행」의 두 종류로 구분되기도 한다 (白幡 1996: 195). 그러나 이를 중 어떤 형태를 취하던 해외여행에 나서는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개인단위보다는 집단으로 여행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여행사에 의해 조직되는 '주최(단체)여행' 형태의 패키지 투어인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현상은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경제적 합리성, 즉 값싸게 여행하고자 하는 욕구와 언어의 문제 등 문화적 자신감의 결여에서 오는 집단여행의 선호 경향에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행업자 측의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판촉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1970년대이후 여행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여행업자의 수가 크게 늘자 경쟁적인 고객유치를 위하여 각 여행업자들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 투어가 개발되었다. 패키지의 조직은 우선 항공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대개 비시즌기를 택하여 싼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기착지의 호텔 역시 비수기의 할인가격에 예약한 다음 그에 맞추어 여행일정으로 짜 넣는 형식으로 조직된다. 1974년 교통공사의 한 직원에 의해 개발된 "성인식을 청바지를 입고 파리에서..."라는 패키지의 내용은 유럽관광의 비철인 겨울을 택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호텔을 예약한 후 일본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10만円代에 5박6일의 유럽여행'을 광고한 상품이었다. 1월은 일본의 각지에서 성인식이 행해지는 철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성인식에 입을 비싼 기모노를 사기 위하여 저축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상품으로 여행일정에 블루진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단체여행객들이 회사를 방문하여 싼 값에 진을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다 한다 (白幡 1990: 451).

패키지투어는 이처럼 숙박과 교통, 관광, 쇼핑까지를 포괄하는 완전히 '만들어진 상품'으로 그것을 선택하여 여행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여행을 계획하고 자신이 여행을 한다기 보다 완전히 만들어져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들을 검토해 본 후 그 중에서 골라서 구입하는 형식이다. 일본의 해외여행자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품화된 패키지 투어의 형태로 여행하며 첨승원(添乘員: 여행일정내내 동행하며 단체여행객들을 안내하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코스만을 돌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시모리는 일본 해외여행자의 특징으로 첫째 사람을 만나거나 문화를 이해하는 면 보다는 자연감상을 위주로 하는 '자연관광'이 많다는 점, 둘째 賣物, 賣春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이 많다는 점,¹³⁾ 셋째 모방적, 과시적 관광이 많다는 점, 넷째 진짜(本物)를 보

는 관광보다는 ‘가짜 (僞物)’ 즉 관광용으로 만들어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돌아오게 되는 관광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石森 1991: 77-88).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패키지 투어가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의 지배적 형태라는 사실과 관련된다는 점은 부정되기 어렵다.

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있어 단체여행의 관행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세이후의 寺社參詣를 위한 여행에서 발전되어 나온 단체여행의 전통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학여행, 사원여행, 농협이나 부인회 등 농촌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의 여행,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패키지 투어 등의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단체여행을 조직하고 일선하는 여행업에서도 역시 중세이래 순례여행을 안내하는 체계로 발전되었던 오시·센다즈 제도로부터의 연속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단체여행의 선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 일생 중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든 단체여행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거의 ‘국민문화’적 요소로 정착되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가토는 일본인들에게 여행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일본인에게 여행이란 집단의 행동인 것이다. 물론 개인여행이 전연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단신여행 (一人旅)이라는 일종의 감상이 따르는 여행의 형식도 있다. 그러나 단신 여행이라는 것이 특별히 감상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그것이 예외적이다라는 말도 될 것이다. 떠돌이의 단신여행이라는 여행형식은 옛날에는 西行, 芭蕉에 까지 더듬어 갈 수 있는 여행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일본인으로서는 부러워하는 대상이기는 하였으나 스스로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조금은 이상한 여행형태인 것이다. 우리들의 태반은 집단적으로 여행하거나 혹은 집단을 그 심리적 배경에 두고서 여행한다. 공동체에서 이탈이란 것은 일본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이탈의 기회라고 보이는 여행까지도 도리어 공동체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실은 일본문화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라고 할만한 것이다 (加藤 1976: 181).

그러나 같은 집단여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단체여행’의 의미를 버스 한 대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40人-내지 50人 혹은 그 이상의 규모의 여행에 한정시킨다면 실제로 일본사회에서도 그런 대규모 단체여행은 점차 쇠퇴하고 가족여행이나 소규모 그룹여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¹³⁾ 또한 일본에서의 여행광고의 내용을 분석한 모이란은 최근의 광

¹³⁾ 일본인의 해외관광은 최근까지도 한국, 대만, 타일랜드, 중국 등지로의 여행자는 남성이 많으며,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유럽등지로의 관광여행은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石森 1991: 79).

¹⁴⁾ 한 통계에 따르면 1966년과 1976년 사이 10년간 여행자수가 약 2,300만인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 중 가족여행의 증가가 1,600만인, 소규모 그룹여행의 증가가 700만인 정도이며 대규모 단체여행자 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1966년에는 단체여행자가 전체 여행자

고들이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단체여행의 형태를 지향하고 집단으로부터의 규제를 벗어나 개인으로서 관광지의 문화적 환경과 스포츠 등을 마음껏 즐길 것을 권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지적한다 (Moeran 1983: 104-105). 그는 이러한 현상을 소비사회 창출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속성의 한 양상으로 해석하는데, 실제로도 현대 일본사회에서 자기발견, 오지탐험, 모험, 스포츠, 놀이 등을 주제로 하는 개인주의적 여행은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¹⁵⁾ 그러나 반면 이러한 젊은층의 새로운 유행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생의 후기단계에까지 이어져 일본의 여행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이 글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집단여행이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쉽사리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특히 그레이번의 지적에서와 같이 일본인들에게 있어 여행이란 서구중산층의 여행문화에서처럼 타자성(他者性, otherness) 즉 '다름'을 추구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기 보다는 자기자신의 재확인, 일본인의 재확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Graburn 1983; 1995; Mac Cannell 1976 참조).

참 고 문 헌

- 권숙인, 1997, 「근세 일본에서 대중관광의 발달과 종교 - '이세마이리(이세신궁참배)'를 중심으로」, 교육부 해외지역연구 과제 『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 역사·문화인류학적 접근』.
- 김양주, 1997, 「일본관광 명소와 자원의 변천 -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만들어지는 '명소'」, 교육부 해외지역연구 과제 『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 역사·문화인류학적 접근』.
- 문옥표, 1994, 『일본의 농촌사회: 관광산업과 문화변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황달기, 1997, 「관광대상으로서의 도시와 도시사람들의 관광욕구 - 근세 일본의 에도(江戸)를 중심으로」, 교육부 해외지역연구 과제 『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분석 - 역사·문화인류학적 접근』.
- 加藤秀俊(Kato Hidetoshi), 1976, 「第七章: 旅行」, 『日本人の生活』(講座: 比較文化 第 4卷): 158-181, 東京: 研究社.
- 大塚民俗學會(編), 1972, 『日本民俗學事典』.
- 白幡洋三朗(Shirahata Yozaburo), 1990, 「旅行業・もう一つの成長神話」, 『中央公論』, 1990년 1월호, pp. 446-451.
- , 1996, 『旅行ノススメ: 昭和が生んだ庶民の新文化』, 中央新書1305,

의 50%이상을 차지하던 것이 1976년에는 34.7%로 감소하였으며, 가족여행은 24.7%에서 34.1%로, 그룹여행은 24.7%에서 26.3%로 증가한 것이 된다 (白幡 1996: 208-209). 그러나 물론 이 시기는 일본 '민족의 대이동'이라고까지 표현되었던 오사카 만국박람회 (EXPO'70)가 열렸던 시기이며 엑스포 관람이 주로 가족단위로 행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¹⁵⁾이러한 현대적 측면은 본 공동연구(「관광연구를 통한 일본문화의 연구」) 제 3차년도에서 보다 짚이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 東京: 中央公論社.
- 石森秀三(Ishimori Shuzo), 1989, 「旅から旅行へ」, 現代日本文化における傳統と變用 6: 守屋毅 編『日本人と遊び』: 92-112, 東京: ドメス出版.
- , 1991, 「海外觀光旅行」, 現代日本文化における傳統と變用 7: 小山修三 編『日本人にとっての外國』74-94, 東京: ドメス出版.
- 星野英紀 (Hoshino Hidenori), 1986, 「歩きと巡りの宗教性: 西國巡禮と四國便路」, 山折哲雄(Yamaori Tetsuo) 編 大系佛教と日本人『遊行と漂泊』: 231-71. 東京: 春秋社.
- 神崎宣武 (Kanzaki Noritake), 1990, 『觀光民俗學への 旅』, 東京: 河出書房新社.
- , 1991, 「旅行業の比較文明學」, 谷口財團主催 第9回國際 Symposium (文明學部門)『近代世界における 日本文明: 觀光の 比較文明學』 國立民族學博物館(1991.3.18 - 25) 발표논문.
- 櫻井徳太郎 (Sakurai Tokutaro), 1962, 『講集團成立過程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 日本總理府(編), 1996, 『平成7年版 觀光白書』
- 中川浩一 (Nakagawa Koichi), 1985, 『觀光の文化史』, 東京: 筑摩書房.
- Graburn, Nelson, 1983, *To Pray, Pay and Play: the Cultural Structure of Japanese Domestic Tourism*, Aix-en-Provence: Centre des Hautes Etudes Touristiques.
- Cedex, 1995, "The past in the present in Japan: nostalgia and neo-traditionalism in contemporary Japanese domestic tourism," In *Change in Tourism: People, places, processes* edited by Butler, R. & D. Pearce, London: Routledge. pp. 47-70.
- MacCannell, D., 1976, *The Tourists: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Schocken Books.
- Martinez, D. P., 1990, "Tourism and the *ama*: the search for a real Japan," In Ben-ari, Eyal, Brian Moeran & James Valentine eds. *Unwrapping Japa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oeran, Brian, 1983, "The Language of Japanes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Special Issue: The Anthropology of Tourism], 10(1), pp. 93-108.
- Vaporis, Constantine Nomikos, 1994, *Breaking Barriers: Travel and the State in Early Modern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Yoshida, Teigo, 1981, "The stranger as god: the place of the outsider in Japanese folk religion," *Ethnology*, 20(2), pp. 87-99.

History and Culture of Japanese Group Tourism

Ok-Pyo Moon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paper aims at an understanding of Japanese culture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Japanese touristic behaviour. The focus of study lies with the well-known pattern of Japanese group tourism. Although one may hear some criticism against and a move away from this pattern recently, the pattern of travelling in relatively large groups seems to remain a dominant pattern for Japanese tourists both in domestic and overseas journeys.

This paper has shown that, historically, the practice of group tourism in Japan has its origin in the middle age tradition of pilgrimage that had first appeared among the aristocrats in the late Heian period and popularised among the commoners during the Edo period. It is also indicated that the highly developed modern tourist business in Japan can be traced back to the comprehensive travel guide system of oshi-sentatsu developed along with this pilgrimage tradition.

Later, during the early Meiji perio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ular trips in such modern organizations as schools, firms,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other associations has effectively contributed toward continuation of the dominant travelling pattern as a universal 'rite of passage' and hence an essential part of national culture. While the ostensible purposes of these institutionalized trips are both educational and recreational, they are also believed to strengthen the group solidarity and enrich human relationships.

Finally, the heavy ritualiz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those who go out travelling and those who remain behind is noted as another distinct feature of Japanese touristic behaviour, and the customs of kadojime, kagezen, sakamukae, and senbetsu and omiyage are explained in this connection.